**제6차 실무위원회**

* **개요**

|  |  |
| --- | --- |
| 기간 | 2007-09-03 ~ 2007-09-06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산둥성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산둥성 |
| 참가 | 5개국 30개 자치단체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베이성, 후난성  |
| 일본국 | 토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몽골국 | 울란바타르시, 움느고비아이막, 볼강아이막, 아르항가이아이막, 자브항아이막, 오르홍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사하(야쿠찌아)공화국,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투바공화국 |

* **내용**

|  |  |
| --- | --- |
| ▷ 2008년 NEAR 제7차 총회를 계기로 산동성과 동북아지역간 협력강화(산동성)▷ 연합회비제 도입(하바롭스크 변경주)▷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사무국)

|  |
| --- |
| **▷ 2010년 총회 유치 신청(경기도)****▷연합 사무국 연임 제안(경상북도)****▷일반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모집(토야마현)****▷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신설(시마네현)****▷2008년 동북아 환경보호산업 상담회 소개(산동성)** |

 |

* **합의문**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제6차 실무위원회회의가 2007년 9월3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31개 연합 회원자치단체, 옵저버단체 연합사무국에서 온 80명의 대표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개막식 축사, 연합의 7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의 활동보고, 중국 산동성, 한국 경기도, 한국 경상북도, 일본 토야마현, 일본 시마네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경주, 중국 하남성, 연합사무국이 제출한 의제와 지난 총회가 토론을 위임한 문제에 대한 심의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동북아 각 지역이 국제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축적한 경험을 교류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산동성은 이번 회의기간에 동북아자치단체 국제협력대화회를 개최하였고 연합의 12개 회원 단체의 대표가 발표했다.

1. 분과위원회 보고

(1) 경제ㆍ통상분과위원회

한국 경상북도는 2006년 12월 경주시에서 제7차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즈니스촉진회의와 다자간 무역상담회를 개최했으며 5개국 35개 자치단체에서 참가하였다.

(2)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아먀현은 환경분과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번역을 거쳐 환경분과위원회의 21개 회원단체에 발송하는 동시에 이를 동북아시아환경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8회 환경분과위원회는 2007년 7월30일 개최되었다. 5개 국 12개 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과 과제, 2007년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와 진전상황, 2008년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 상황 통보, 일본 토야마현이 환경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계속 맡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3) 환경분과위원회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에 관하여

일본 시마네현이 2006년 11월3일부터 7일까지 ‘동북아시아 국제문화파레트’사업을 실시하였고 중국 길림성의 길극단 22명이 시마네현의 예술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으며 약 1,000여 명의 관중이 이를 관람하였다. 그 밖에 현내의 장애인단체, 초등학교와 교류활동 공연을 실시했다. 올해도 동북아지역의 전통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시마네현에서 상호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8월2일부터 7일까지 ‘2007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를 실시하여 4개국 9개 자치단체에서 온 47명이 참가했다. 참가지역의 요리교류와 문화소개, 일본전통문화체험, 환경 및 복지학습 등이 그 내용이며 홈스테이, 각종파티 참석으로 참가자간의 교류를 촉진했다.

(4)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은 2007년 2월13일부터 16일까지 방재분과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5개국 15개 자치단체의 3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보교류형 연수’에서 ‘참여• 과제해결형’으로 변화했으며 해저드멥의 제작연수, 기진차를 이용한 지진체험, 모의연기피난 훈련 등 체험형 학습 및 훈련과 선진사례 발표, 효고현의 관련 방재시설 시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5)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관련 자치단체의 직원 상호파견, 유학생 및 연수생 등의 파견 및 수용, 청소년 등의 해외파견 등 인재양성 사업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토야마현 국제•일본해정책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중인 행사내용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간의 연락 및 공동행사개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치단체의 다양한 제안을 수용하여 새로운 과제를 탐구할 계획이다.

(6)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러시아 아무르주는 원래 2007년 8월25일부터 28일까지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몽골, 러시아 3개국 4개 회원단체만이 회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2008년 4월로 연기되었다. 많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7)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한국 경기도는 7월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역내 과학기술분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5개국 20개 자치단체의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2개 자치단체가 각각 참가지역과 기관의 과학기술개발현황과 과학기술의 국제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했고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협력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8) 연합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했다.

(1) 4월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경상북도와 기타 자치단체의 통상교류 활동 협조

(2) 5월15일부터 18일까지 5개국 32개 회원단체의 대표 실무자워크샵에 초청

(3) UCLG, CITYNET, ANMC21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4) 한국 경상북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방문을 협조, 지방의회교류 추진

(5) 연합홍보 강화를 위해 6개국 언어로 뉴스레터와 홍보책자 발행

(6) 4개국 4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제기구로서 사무국의 이미지를 높임

(7) 2007년 6월30일부터 7월15일까지 연합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포

(8) 2007년 10월17일 동북아경제포럼 실시 예정

(9)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연합 홈페이지 보수예정

(10) 사무국은 이번 의장단체인 중국 산동성이 2007년 실무위원회 회의와 2008년 총회의 개최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

2. 회의 발언, 의제 심의 및 토론 상황

(1) 동북아지역 협력과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

연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중국 산동성 차이리민 부성장은 개막식 발언에서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는 3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동북아지역협력에 새로운 기반을 닦자.

-전문화된 분야별 교류를 강화하여, 동북아지역의 실무적인 협력을 촉진하자

-환경보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동북아촌을 함께 만들자.

(2) 중국 산동성이 2008년 NEAR 제7차 총회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산동성은 2008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7차 총회의 기본 방안과 동북아 환경보호상담회 방안을 통보하고 회의참가대표들의 의견을 청취, 모든 회원단체가 상술한 두 행사에 적극 참가하기를 희망.

- 산동성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해양 및 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공식 신청하고 산동성이 이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맡을 것을 희망. 회의참석 대표들은 심의를 통해 이 제안을 2008년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할것에 동의.

-산동성은 2008년 NEAR 총회를 계기로 동북아지역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긴밀히 연계하고,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대외 문화홍보, 관광판촉, 투자유치, 제품시장개척 등 핵심 교류 프로젝트를 긴밀히 연계하며,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양자간 대외 교류의 핵심지역을 긴밀히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3) 해양어업분과위원회(중국 산동성) 관광분과위원회(중국산동성, 하남성)신설 제안

회의 참석 대표들은 심의를 거쳐 이 제안을 2008년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데 동의.

(4) 연합 회비제 도입에 관한 문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경주는 연합 회비제를 도입하여 연합행사 주관 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회원단체가 행사참가시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회의는 내년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데 동의했다.

(5) 한국 경기도가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 총회 유치를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으며 회의참가대표의 토론을 거쳐 2008년 제7차 총회에 공식 상정,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6) 한국 경상북도가 사무국 연임 신청

2004년 경상북도 연합사무국을 유치한 이후, 재정, 인력 등 여러 분야에서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사무국 재임 신청을 2008년 제7차 총회에 공식 상정,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7) 일본 토야마현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모집 및 일본 시마네현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신설

토야마현은 1998년 12월22일 일반교류분과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계속 코디네이터를 맡아 왔다. 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타 회원이 차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를 희망했다. 일본 시마네현의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 일반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8)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문제

이후 2004년 흑룡강성 총회와 2006년 부산 총회에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회의대표들은 협의를 거쳐 연합의<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명칭에 상술한 두 분과위원회를 첨가했다.